

승가갈마를 통해 본 재가와 출가의 관계*

신 성 현

동국대 불교대학(서울)

〈국문초록〉

본 글은 초기불교교단에 있어 재가자와 출가자의 관계에 대하여 밝히는 논문이다. 붓다의 최초의 제자는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이었다. 붓다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셨을 때 따뻏사(Tapussa), 발리야(Bhalliya)라는 두 상인이 음식을 공양하고 처음으로 재가신도(Upāsaka)가 되었다. 이 사건은 녹야원(Migadāya)에서 5비구를 제도하기 이전의 일이다. 이 사건은 붓다의 입장에서 볼 때 재가자 역시 출가자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이었음을 시사한다.

재가자는 출가자를 가까이 모시고, 출가자가 걸식을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하면 음식을 제공하고 또한 옷을 비롯한 일상용품을 공급해 주는 존재이다. 출가자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재가자에게 붓다의 법을 전해 주어, 올바른 삶을 사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이다. 이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만 불교승단은 오랫동안 존속할 수가 있다.

재가자와 출가자 사이에는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는 서로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이다. 율장에서는 둘 사이에 충돌을 해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갈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훌륭한 재가자가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많은 곳에는 탁월한 출가자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출가자가 청정과 위의를 잃었을 때, 재가자는 출가자에 대한 존경과 신심은 사라지게 된다. 출가자와 재가자가 서로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재가자와 출가자의 상호관계는 깨지게 될 것이다.

초기불교시대의 출가와 재가의 관계는 상호 호혜적이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양받는 자와 공양하는 자로서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며, 종교적 측면에서는 설법하는 자와 설법을 듣는 자라는 인도적인 관계였고, 진리적 측면에서는 법의 상속자와 외호자라는 상호보완 관계였다. 즉 수행이나 설법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에서는 출가자가 지도자이고 재가자가 추종자였지만, 진리를 전파하고 교단을 외호하는 데는 재가자가 보호자이고 출가자는 오히려 피보호자 입장에서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불교승가, 출가자, 재가자, 우바새, 갈마

I. 서론

초기불교 교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불교교단에 기여하는 재가자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에도 재가자에 대한 중요성은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초기불교교단의 성립과 발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가자의 기여와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붓다 당시 붓다를 따르는 제자들로 형성된 공동체를 승가라고 한다. 본래 상가는 사성계급의 우두머리인 바라문과 달리 카스트 또는 출신성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신분의 수행자인 沙門(samana)을 쫓아 형성된 제자들의 집단을 일컫는 말이었다. 상가는 불교교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고대 인도사회의 일종의 수행 공동체를 일컫는 단어이었다. 불교공동체는 사부대중으로 구성된다. 사부대중(cattāri parisā)은 출가중인 비구중과 비구니중과 재가중인 우바새중과 우바이중으로 양분된다.

이들 모두는 불교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이다. 불교가 종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출가중인 비구와 비구니는 물론, 재가자중인 우바새와 우바이도 이에 못지않게 필요한 구성원이다. 우바새와 우바이가 사라지게 된다면 종국 비구 비구니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되고 불교는 종교로서의 가치는 상실되기 때문이다.

비구(비구니)라는 단어는 ‘걸식하여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며 걸식하는 대상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또한 우바새(우바이)라는 단어는 ‘모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모시는 대상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성립되어진다. 이 둘은 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서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의존관계 속에서 의미가 살아난다. 따라서 율장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승가 갈마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는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사건을 미연에 막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본고에서는 재가자와 출가자의 정의와 역할을 살펴보고 불교 교단 내에서 재가자와 출가자의 지위와 관계를 보고 특히 율장에 나타난 갈마를 통해 둘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출가와 재가의 정의

출가자는 남성인 비구와 여성인 비구니가 있다. 출가자의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출가¹⁾의 의미를 마지막 니까야를 통해 살펴보자.

가정이란 지극히 좁고 괴로운 곳ियो, 집을 떠나 도를 배우는 것은 환히 드러나고 넓고 큰 것이다. 내가 지금 집에 있을 경우 사슬에 묶인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범행을 닦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차라리 적은 재물이건 많은 재물이건 이 재물을 버리고, 적거나 많거나 친족을 떠나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지극한 믿음으로써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우리라.

그는 그 뒤에 적건 많건 재물을 다 버리고, 적거나 많거나 친족을 떠나 수염과

1) 한역 出家는 Pāli의 pabbajjā와 산스크리트의 pravrajyā에 해당한다. 기본 어의는 ‘나아가다(the going forth)’이며 집에서 집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다’와 ‘믿음에 따라 집에서 집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다’가 경전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다.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지극한 믿음으로써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운다. 그는 집을 떠난 뒤에는 친족의 책임을 버리고, 비구의 중요한 가르침을 받아 禁戒를 닦아 익히고, 從解脫을 지켜 보호하며, 또 위와 예절을 잘 거두어 잡고, 털끝만한 죄를 보아도 언제나 두려워하는 생각을 품으며, 배운 계를 받아 지낸다.²⁾

출가라고 하는 행위는 세속이라는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세속을 떠나 수행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출가이기 때문이다. 출가의 의미는 부모, 형제, 친구, 연인 등 모든 인연을 끊고, 재물, 명예 등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관을 버리고 세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성계에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³⁾

반면 재가는 여러 용례에서 보듯⁴⁾ 세속을 떠나지 않고 붓다의 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 재가는 ‘집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이전의 집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특히 재가남성은 우빠사까(Upāsaka, 優婆塞), 재가여성은 우빠시까(Upāsikā, 優婆夷)라고 하였다.⁵⁾

붓다 시대부터 불교교단은 출가중인 비구와 비구니, 재가중인 우바새와 우바이의 사부대중으로서 구성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우바이는 ‘佛·法·僧 삼보를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가까이 같이 하고,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뜻한다. 초기경전 『앙굿따라니까야』에서는 붓다는 우바새가 되는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⁶⁾

우바새는 바른 믿음(正信)을 완전히 갖추어 남도 완전히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스스로도 깨끗한 도덕적인 삶을 확립하고 남도 확립하게 한다. 자신도 보시하고

2) *Majjhima Nikāya* I p. 179.

3) 재가는 산스크리트어로 grhastha(집에 사는 자), grhin(집을 소유하고 사는 자), agārika 또는 āgārika(집을 돌보는 자, 집에 사는 자), gahaṭṭa-vatta(재가 지계수행자) upāsaka, upāsikā 등을 용례를 통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4) 히라가와 아키라 編(1997) p. 290a.

5) 청신사(淸信士), 청신녀(淸信女) 또는 신남(信男), 신녀(信女) 등 다양하게 불리어 왔다. 鈴木學術財團(1986) p.279a.

6) 五戒把持運動國際本部(1995) p. 103.

남도 행하도록 하고, 스스로 여러 비구들을 뵈고 남도 그렇게 하도록 한다. 스스로도 열심히 법을 듣고 남도 또한 듣게 한다. 스스로도 법을 가지고 남도 받아 가지게 한다. 스스로도 이치를 관찰하고 남도 관찰하게 한다. 스스로도 깊은 이치를 알아 법에 따르고 향하며 닦으면서 남도 깊은 이치를 알아 법을 따르고 향해 수순하여 닦게 한다.⁷⁾

재가자가 되는 기본조건은 3寶에 귀의하는 것이다. 나아가 5戒의 수지까지로 확장되며, 계속해서 5계에 8齋戒를 더하기도 한다.⁸⁾ 불교전통에 따르면 진정한 재가자가 되기 위해서는 3寶에 귀의하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5戒(pañcasīla)를 실천하는 데에 있다. 이를 마음속에 깊이 굳게 받아 지니는 것이다.

Ⅲ. 재가자의 출가자에 대한 의무

『대반열반경』에서 붓다께서는 "항상 5계를 지키는 이에게는 첫째 큰 재산, 둘째 명망, 셋째 자신감, 넷째 평온한 죽음, 다섯째 죽음 뒤의 행복과 같은 다섯 가지 좋은 결과를 얻을 것"⁹⁾는 설명이 보인다.

재가자는 5계를 온전히 실천하여 다섯 가지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5계를 지키는 일을 쉽지 않게 한다. 사회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재가자에게는 이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5계의 分受를 열어놓고 있다. 자신의 처지에 의해 5계를 온전히 실천할 수 없지만 일부만 지키는 것도 허용한다. 이는 5계의 일부만이라도 지키게 함으로써 마침내 전부를 준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아 가능한 한 많은 재가자를 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7) *Aṅguttara Nikāya IV* pp. 220-222.

『잡아함경』 33 “優婆塞者 在家淨住 乃至盡壽 歸依三寶 爲優婆塞 證知我”

8) 조준호(2008) p. 211.

9) *Dīgha Nikāya II* p. 86.

5戒에 5種의 受戒法이 있는데, 이를 5종의 우바새라 한다. 첫째는 一分行의 우바새, 둘째는 小分行의 우바새, 셋째는 多分行의 우바새, 넷째는 滿分行의 우바새, 다섯째는 斷婬優婆塞이다. 一分行者는 5계 중에 1계를 받는다. 4계를 受持할 수 없기 때문이다. 小分行者는 2계를 받거나 3계를 받는 사람이다. 多分行者는 4계를 받으며, 滿分行者는 5계를 전부 받는 사람이다. 斷婬者는 5계를 받고난 뒤에 다시 스승 앞에 나아가 스스로 서약하고, “나는 내 妻와도 성관계를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 이를 5계라 이른다.¹⁰⁾

『숫따니빠다』에서는 붓다께서는 재가자 수행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재가자가 서약하여야 할 계(gaḥatṭhā-vatta)’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¹¹⁾

1. 생명을 죽이지 말 것이며 다른 이로 하여금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2.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지 말 것이며 다른 이로 하여금 가지게 해서도 안 된다.
3. 청정하지 않은 행을 해서는 안 된다.
4.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에게라도 망언을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이에게 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5. 술을 자신이 마셔서도 안 되며 남에게 마시게 해서도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술에 취하여 악한 일을 저지르며, 술에 취해 있는 남에게도 악한 일을 행하게 한다.

이와 같이 5계 덕목을 들면서 ‘재가자가 서약하여야 할 계’라고만 할 뿐, 처음부터 5계(pañcāsīlani)라고는 하지 않고 있다. ‘다섯 가지 악’ ‘다섯 가지 적의의 두려움(pañcaverbhaya)’등으로 부르다가, 마침내 5가지 戒를 5戒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상적 불교인은 5戒를 지녀야 하며, 이를 지냄으로써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앙굿따라 니까야』에서는 5戒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¹²⁾

10) TD 25 p. 158 下.

11) *Sutanipāta* V V pp. 394-399.

12) *Aṅguttara Nikāya* Vol. VI, p. 250.

대덕이여! 어떤 사람을 계를 갖춘 우바새라 하는가? 만약 우바새가 살생을 멀리 떠나고, 주지 않은 물건을 취하는 것을 멀리 떠나고, 부부이외의 부정한 관계를 멀리 떠나고, 망령된 말을 멀리 떠나고, 술마시는 일과 마작 등 온갖 노름행위를 멀리 떠난다면 이를 계를 갖춘 우바새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재가자 5계의 정형화된 형태가 보인다. 한역경전에서는 이는 不殺生, 不偷盜, 不邪淫, 不妄語, 不飲酒로 일반화되어 나타난다..

『잡아함경』에서는 부부생활 등 5慾樂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바이의 경우에는 有身見, 戒取見과 疑心을 끊을 경우 수다원[豫流]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또 오욕락을 누리며 사는 우바새의 이러한 세 가지 번뇌를 끊게 되면 사다함이 될 수 있다. 재가자가 아나함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생활을 금한 후 수행을 통해 五下分結[탐욕, 분노, 유신견, 계취견, 의심]을 끊어야 한다.¹³⁾

붓다께서 5계의 수지와 더불어 재가자의 실천으로 들고 있는 것은 四不壞淨이다. 不壞淨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不壞淨의 믿음은 붓다, 붓다의 가르침인 법, 붓다를 받드는 승가와 戒의 네 가지에 대한 믿음이고, 그러기에 네 가지 不壞淨이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三寶와 5戒에 대한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이다.¹⁴⁾

한편 재가자는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지키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그러나 재가자에 있어 보시는 강제된 것이 아닌 자발적인 것이다. 재가자가 승가에 보시를 행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상가로부터 어떠한 비난과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재가자의 보시행위로 마련된 시혜물로 교단이 유지·존속될 수밖에 없었기에 재가자의 보시행은 당연한 것이었다.

재가자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를 승가에 제공했다.¹⁵⁾

13) 김성철(2003) pp. 104-105.

14) 李尙圭(2004) pp. 129-130.

15) 초기의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는 재가자가 식사를 공양하면 그 답례로 비구들이 법을 설하고 또 다시 유행하는 식이었다. 영구적인 거주처 정사가 건립됨에 따라 재가증들과

그리고 재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信, 戒, 布施, 聞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당시 바라문 종교와 자유사상가의 등장 등 사상계의 각축장에서 불교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물론 붓다 개인의 탁월한 인품과 교법의 완벽함 등에 힘입은 바이지만, 이 또한 재가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¹⁶⁾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왕이나 부호들의 귀의는 승가사회를 확장 발전시키는 절대적인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¹⁷⁾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마가다국의 빔비사라(Bimbisāra) 왕¹⁸⁾이다. 율장 속에 나타나는 빔비사라 왕은 죽림정사를 보시했고, 불교를 공식적으로 보호했고, 포살을 붓다에게 권청하였고 죽림정사의 기증하는 등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를 통해 재가자로서 출가자들에게 온 몸을 다하는 우바세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재가자는 출가자와는 지켜야 하는 戒와 律을 달리 한다. 재가자는 계만을 지키면 되지만 출가자는 계와 동시에 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율을 어길 경우 이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전적으로 재가자의 보시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출가자는 재가자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된다.

이처럼 출가자와 재가자의 직분과 역할이 다르지만, 모두가 ‘붓다의 가르침을 듣는 자’¹⁹⁾ 그리고 따르는 자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재가자는 출가자에게 보시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자이지만, 재가자의 신분이 출가자보다 열등하고 출가자가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출가자와 재가자는 서로가 필요로 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공경하는 관계이다.

장아함경의 『善生經』에는 재가자와 출가자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끊임없는 관계가 성립됐다. 승가사회가 유행에서 정주의 조직으로 변화하면서 재가자의 보시는 불교의 중심 개념 중 하나가 되었다.

우마 차크라바르티(2004). 박제선 역 p. 96.

16) 신성현(1997) p. 327.

17) 목정배(2001) p. 39.

18) 빔비사라의 귀의는 TD 22 p. 798中과 TD 22 p. 110中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 中村元(1993). 장태혁 역 p. 185.

선생아, 檀越은 마땅히 다섯 가지 방법으로 사문을 공양해 받들어야 한다. 어떤 것이 다섯 가지방법인가? 첫째는 몸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입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셋째는 뜻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넷째는 때를 맞추어 보시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문을 막지 않는 것이다.

선생아, 만일 시주가 이 오사로써 사문을 공양해 받들면 사문은 또 여섯 가지 방법[六事]으로써 가르쳐야 한다. 첫째는 보호하여 악을 짓지 않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착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셋째는 선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이미 들은 것을 잘 알게 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하늘의 길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선생아, 이렇게 단월이 사문을 공양해 받들면 그는 안온하여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²⁰⁾

재가자는 출가자를 몸과 입과 뜻으로 받들어 모시고, 자기 집에 언제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반면에 출가자는 재가자에게 자신이 배운 붓다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책무가 있다. 이는 財施와 法施의 관계라 할 수 있으며, 이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불교승가가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다.

울장에서는 출가자와 재가자와의 갈등이 충돌²¹⁾되는 사건이 발견된다. 이는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하게 한 것에서 기인한다. 훌륭한 재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에는 탁월한 출가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 재가자가 발심하여 출가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며, 재가자는 출가자의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출가자가 출가자답지 않을 영위하지 못할 때, 재가자는 출가자에 대해 비판하게 되며 중국 출가자에 대한 존경은 사라지게 된다. 출가

20) TD1 p. 72上.

21)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출가자들이 재가자들을 통제하기 힘들었다는 사실이다. 이 둘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출가자들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공된 보시물에 대한 거부적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기 발우를 뒤집어 놓아 재가자가 공덕을 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출가자와 재가자는 보시를 매개로 한 관계지만, 서로 견고한 유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관계가 쉽게 소원해질 수 있었다. 우마 차크라바르티(2004). 박제선 역 p. 102.

자와 재가자가 서로 존중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서로의 상호관계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초기불교시대의 출가와 재가의 관계는 상호 호혜적이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양을 받는 자와 공양하는 자로서 지원하는 관계를 가지며,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설법하는 자와 설법을 듣는 자라는 교사적인 관계였고, 진리적 측면에서는 법의 상속자와 외호자라는 상호보완 관계였다. 즉 수행과 설법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에서는 출가자가 지도자이고 재가자가 추종자였지만, 교단을 지원하고 외호하는 입장에서는 재가자가 보다 중심적이고 출가자는 피보호적 입장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둘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며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였을 때 불교는 발전하였고 그렇지 못하였을 때 불교는 쇠락하였음을 불교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다.

IV.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

최초기 붓다의 제자는 재가자인 우바새였다.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따뻛사(Tapussa), 발리야(Bhaliya)라고 하는 두 상인이 길을 가다가 음식(밀환)을 공양하고 재가신도(Upāsaka)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붓다는 녹야원으로 가서 5비구를 제도했다. 이를 보면 출가보다 재가가 먼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율장에 나타나는 재가자의 역할은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되어 설명된다. ① 삼보에 귀의하며 항상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② 5계를 수지하도록 노력한다 ③ 매달 6회의 팔재계²²⁾를 지켜 이 날은 설법을 듣도록 해야 한다 ④ 하안거를 마친 비구에게 가사장삼을 보시한다 ⑤ 붓다의 탄생지, 성도지, 초전 법륜지 그리고 열반지 등의 성지를 참배한다 ⑥ 佛塔 등의 聖跡들을 참배한다.²³⁾ 율장에서는 이처럼 재가자가 실천해야 할 덕목을 구체적으로

22) 팔재계(八齋戒)란 5계에 ⑥제 때가 아닐 때 밤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⑦꽃이나 향을 몸에 장식하거나 바르지 않는다 ⑧다리가 있는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등의 3가지를 더 보탠 것으로서, 5계보다 확장된 청정한 삶을 지내자는 데 그 뜻이 있다.

23) 조준호(2003) p. 134.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가자의 자격상실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사분율』에서는 “비구를 보아도 선뜻 일어서지 않고, 선뜻 절을 하지 않으며, 비구가 앉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며,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체 하지 않고, 의복 의식 따위를 요구하면 비구를 업신여겨 주지 않으며, 많이 가졌으면서도 조금 주고, 고운 것이 있으면서도 거친 것을 주는 것” 등 아홉 가지를 말하고 있다. 아홉 가지를 행하는 재가자는 신자로서 자격을 상실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⁴⁾ 경전에서는 재가자의 몇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왕과 왕족, 촌장, 대신과 귀족, 지방 관리, 장군, 바라문 사제나 교리학자, 수학자, 의사, 고급 遊女, 지주, 巨商, 隊商, 고리대금업자 등과 같이 다양하였다. 당시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었던 상류층의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 반면에 이발사, 농부, 코끼리 조련사, 옹기장이, 금속 세공업자나 범죄인 또는 거지들과 같이 하류층의 사람도 등장한다.²⁵⁾ 이처럼 재가자는 왕에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류 사람들이었다. 특히 왕이나 대상과 같은 상인 계층의 불교귀의는 승가의 발전 더나가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출가 승가는 전적으로 재가자의 보시에 의존하여 성립되었고 유지되었다. 붓다 재세시부터 재가자의 건의와 요구를 받아들여 승가의 의식과 계율이 제정하였고 확립되었다. 이는 승가공동체가 사회여론을 받아들여서 의식과 계율을 제정하였고 개변하였음을 의미한다. 출가승가는 항상 재가자와 일반 사회의 여론에 귀를 열어 놓고 들으려 하였다.

붓다는 스스로 걸식을 행하였고 재가자를 직접 만났다. 또한 진리의 가르침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자신의 장례절차마저도 재가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마지막에는 그동안 많이 만난 출가자보다는 재가자와의 소통을 원하였다. 승가 내의 금전취급도 재가자들이 직접 맡게 하였다.

24) 이태원(2000) p. 63.

25) 조준호(2008) p. 115.

붓다는 출가중만이 아니라, 재가중이 포함된 사부대중을 제자로서 인정하였고 재가자의 전법활동을 칭찬²⁶⁾했다.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를 제자로서 평등하게 대하고 이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수행할 것을 당부하셨다. 불교의 궁극 목표인 해탈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제자들은 승속을 넘어서 가치롭게 인정하셨던 것이다.

V. 갈마를 통해 본 출가자와 재가자

출가와 재가의 상호관계를 발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출가와 재가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승단에서는 어떤 조정방법이 있었나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승가갈마를 통한 해결이다. 그러한 갈마에는 의지갈마, 구출갈마, 하의갈마, 복발갈마, 학가갈마 등이 있다.

(1) 依止羯磨(nissaya-kamma)

의지갈마가 생긴 인연담을 보면 施越(사분율에서는 僧芻)라는 비구가 어리석고 총명하지 못하여 교계를 받지 않고 재가자와 함께 있으면서 반복하여 승잔죄를 지었다. 그로 인하여 비구들은 그에게 별주를 주고 본일치를 주고 마나타를 주기를 반복한 것에²⁷⁾ 의해 생겨났다. 그런 비구에 대해 의지갈마를 주어 한 사람의 비구가 그를 감독하고 지도하게 하도록 의지하게하는 것이다. 즉 감독하는 비구(의지하게 하는 비구)는 의지하는 비구에게 경전을 외우게 하고, 많이 듣게 하며, 阿舍에 능통하게 하고, 법을 가지게 하며, 律을 가지게 하는 등 많은 것을 익히게 해야 하고, 이 때 의지갈마를 받은 비구는 항상 감독하는 비구 밑에서 의지하여 모든 행동을 해야 하여 나쁜 행동을

26) 외도를 항복 받는 굴다 장자, 깊은 법을 잘 설명하는 우파굴 장자, 모한 법을 잘 설명하는 최상부의 우바새, 남 건지기를 좋아하는 사자 왕자, 항상 모든 중생을 가없이 여기는 석가족의 마하야나마, 설법을 잘 하는 양길사 우바이, 외도를 항복받는 바수타 우바이, 항상 자비삼매를 행하는 마하광 우바이,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시리부인 등이 있다. 한글대장경 증일아함경, pp. 53-57.

27) TD 22 p. 163

교정받아야 한다.²⁸⁾

(2) 驅出羯磨(pabbajaniya-kamma)²⁹⁾

驅出羯磨는 비구가 재가신자와 특별한 관계로 교제하거나 여러 가지 오락이나 유희를 즐기며 스스로 타락하고 재가자들의 믿음도 타락시키는 등의 출가자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시행되었고, 세간에서 추문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비구를 현전상가로부터 별주시켜 이런 행동을 제지시키고 반성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갈마이다. 이는 승잔죄에 상당하는 무거운 징벌이지만 일시적인 추방으로 참회와 함께 여법하게 行法을 실천한 후에는 解갈마를 통해서 상가에 복귀하게 된다.

汚家와 惡行을 행하는 비구에게 상가는 백사갈마에 의해 구출갈마를 행하면, 그 비구는 住處 즉 현전상가에서 구출되어 별주를 하게 된다. 별주하게 하는 이유는 악행을 저지른 곳으로부터 격리시켜 악행을 행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참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다른 비구들이 그에게 물들지 않게 한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구가 악행을 저지르고 나서 바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를 하면 구출갈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갈마의 목적은 잘못을 행한 비구를 참회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참회를 바로 했다면 갈마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당시에 참회를 하지 않아 구출갈마를 받았다면, 別住하는 동안 참회와 함께 行法을 법답게 행하여 상가로부터 解羯磨를 받으면 바로 상가에 복귀가 가능하다. 이 갈마의 징벌기간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참회만 한다면 바로 상가에 복귀하여 정지된 비구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구출갈마가 생겨난 인연담을 보면 阿濕卑와 富那婆娑가 나쁜 행동을 하여 남의 집을 더럽히기도 하고, 재기지의 집에 가서 남자가 있든 여자가 있든 같은 평상에 앉고 같은 그릇에 음식을 먹고 같은 그릇으로 음료수를 마시며, 노래·춤·익살 등 갖가지 재물을 떠는 등 비구로서 위의를 지키지 않아서

28) 남전대장경 4 pp. 10-13.

29) 신성현(2008) pp.5-29 참조

생겨났다. 즉 비구가 스스로 身·口·意 등으로 나쁜 업인 戲樂, 非行, 邪命 등을 가지고 재가자의 깨끗한 신앙심을 떨어뜨린다지 여인에게 고상하지 못한 말 등을 하여 세속 사회에 추문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비구에 대해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반성하고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구출갈마를 받은 비구는 그곳으로부터 축출되어 부르지 않았는데 청정한 대중이 사는 곳에 오면 안 되고, 의사를 전달하고 싶으면 항상 경계 밖에서 서신으로 전달해야 한다. 참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이며, 풀어 주기를 요청할 때도 서신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진심으로 참회하여 대중에게 풀어 주기를 서신으로 요청하면 대중은 다른 갈마와 같이 白四羯磨에 의해 풀어 주면 된다.³⁰⁾

(3) 下意羯磨(patisaraniya-kamma)

하의갈마는 비구를 재가자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갈마이다. 이 갈마는 출가자가 재가자를 매도하거나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에 승가의 결의로 피해를 준 비구가 재가자에게 사죄를 하여 용서를 비는 것으로 출가자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참회법이다.

『사분율』³¹⁾에 보면, 비구가 ① 나쁜 말로 재가자를 꾸짖고, ② 방편으로 재가자에게 손해를 주며, ③ 이익 없는 짓을 하고, ④ 살 곳이 없게 하고, ⑤ 재가자와 싸우며, ⑥ 재가자들 앞에서 부처님을 비방하고, ⑦ 재가자들 앞에서 부처님 법을 비방하며, ⑧ 재가자들 앞에서 비구를 비방하고, ⑨ 재가자들 앞에서 하천한 욕을 하며, ⑩ 법답게 재가자들에게 허락하고서 뒤에 실체가 없다고 하는 등 위의가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갈마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열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범하면 白四羯磨에 의해 대중의 승인을 받아 재가자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의갈마이다. 이렇게 한 후 뒤 여덟 가지 자격을 갖춘 유능한 비구를 白二羯磨에 의해 뽑아 재가자 집에 가서 참회를 해야 한다.³²⁾ 만약 재가자가 참회를 받지 않으면 죄를 범한 비구가

30) 남전대장경 3 pp. 573-578.

31) TD 22 pp. 892a-893c.

직접 가서 참회해야 한다. 혼자서 가는 것이 부끄러우면 거들어 줄 사람과 함께 가도 좋다. 사죄할 때까지는 비구나 비구니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므로 매우 수치스런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출가생활을 지속하고 싶으면 싫더라도 사죄하러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참회한 후 갈마를 받은 비구가 진심으로 풀어주기를 두 번, 세 번 말하여 청하면 이것도 白四羯磨에 의해 대중의 승인을 받아 풀어주면 된다.

(4) 覆鉢羯磨(pattam-nikkujjita-kamma)

재가자 측이 출가자에 대해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 재가자에 하는 징벌 갈마도 있다. 복발은 말 그대로 발우를 엮어 버리는 것이다. 발우를 엮어 출가자에 잘못을 저지른 재가자에게 공양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재가자에게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지 않고 다음 생의 복을 받는 것도 차단하는 것이다. 『사분율』³³⁾에 보면, 한 비구가 재가자로 하여금 다른 청정한 비구를 사실이 아닌 죄를 가지고 비방하도록 해서 생켰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재가자가 청정한 출가자를 비방하면 白二羯磨에 의해 승단의 허락을 받아 覆鉢羯磨를 주어 재가자로 하여금 승단과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징벌이다.

붓다께서는 재가자에게 다음과 같은 허물이 있으면 복발갈마를 주라고 하였다. ① 출가자들의 보시를 얻지 못하도록 도모하고, ② 출가자의 불이익을 도모하고, ③ 출가자의 주처 즉 머무를 곳을 얻지 못하도록 도모하고, ④ 출가자를 비방하고, ⑤ 출가자와 출가자 사이를 이간질 하고 ⑥ 부처님을 비방하고, ⑦ 법을 비방하고, ⑧ 승가를 비방하는 것 등 여덟가지이다.³⁴⁾ 이 가운데 한 가지 죄만 지어도 覆鉢羯磨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허물이 있는 재가자에게 복발갈마를 통지할 때는 유능한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 즉 ① 잘 들을 줄 알고, ② 잘 말하며, ③ 잘 이해하고, ④ 남을

32) 이태원(2000) p. 267.

33) TD 22 pp. 958c-959a

34) 이자량(2009) p. 160.

잘 이해시키며, ⑤ 남의 말을 받아들이며, ⑥ 잘 기억하고, ⑦ 좋고 나쁜 말의 이치를 아는 등 여덟 가지를 갖춘 비구를 白二羯磨法에 의해 뽑아 재가자에게 보내어 통지하면 된다. 만일 이 통지를 받은 재가자가 진심으로 참회를 원하면 승단은 이를 받아들여 白二羯磨에 의해 죄를 풀어 주면 재가자의 覆鉢羯磨는 해제된다.

재가자측이 출가자에 대해 나쁜 짓을 했을 경우의 징벌 규정인 복발갈마는 재가자가 우바새나 우바이인 재가자일 경우에 한해서만 행해진다. 승단은 불교신도가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아무리 심한 행동을 했다고 해도 어떠한 징벌이나 처벌도 행할 수 없다. 이 상태는 보시에 의한 선업이 더 이상 쌓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바새나 우바이의 입장에서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중대사가 된다. 복발갈마는 하의갈마와는 반대로 재가자에 대해 승가가 징벌을 가하는 것이다.³⁵⁾ 복발의 해제를 원하는 재가신도는 승단 전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승단이 이것을 인정하면 원래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승단과 일반사회 사이에 생긴 분쟁과 갈등은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이다.

(5) 學家羯磨

재가신자들 중에는 신심이 너무 깊은 나머지 자신의 생활형편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기부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생활도 돌보지 않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승단에 보시하는 것에만 열중하는 신심 깊은 신도들이다. 이런 이들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여 왔다. 붓다당시에도 이러한 신자들이 있었으며, 그 대처방안 또한 마련되어 있었다.³⁶⁾ 그것이 바로 학가갈마이다. 승단 갈마를 통하여 그러한 신자의 집에는 가지 않도록 하여 신도가 무리하게 보시하지 않도록 결의하였다.³⁷⁾ 비구

35) 남전대장경 4 pp. 190-193

36) 사사키 시즈카(2007) p.242.

37) 특히, 오분율에 이 규칙이 상세하게 나타난다(오분율 72c-73b). 그밖에 사분율 696c-697b, 십송율 131c-132c, 근본유부율경분별 900ab, 근본유부비구니율 1016c-1017b, 마하승기율

들은 학가갈마를 받은 재가신자의 집에 가서는 걸식하는 것을 금지한다.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받자는 식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하면 중국에는 그 재가신자도 돌아서게 되고 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일반사회와의 사이에서 경제적인 마찰을 일으키면 반드시 승단측이 지게 된다. 곧 세간의 존경을 잃어버리고 재가자의 신심도 없어 지고 보시도 끊어져서 불교승단은 쇠퇴할 것이다. 승단이 소멸하면 결국 수행의 장을 확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불교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신도에게 폐를 끼치는 무리한 보시를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³⁸⁾

이러한 여러 가지 갈마법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함께 다스리는 법으로 넓은 의미로 교단을 통제하고 잘 이끌어 가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올에 따르면 세간과의 원활한 공존관계를 유지하는 불교승단이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본래 목표를 잃어버릴 만큼 신도와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Ⅵ. 나오는 말

올장을 보면 출가자의 계율 가운데 많은 조문들이 재가자의 비난과 비판에 의해서 출가 자로서의 非法이라 규정되어 새롭게 올로서 제정되거나 올 조문이 개변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출가자는 음식을 비롯한 일상 생활을 전적으로 재가자의 보시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재가자의 신심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동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초기경전인 이띠쁘따까에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재가자와 출가자는 서로 의존하여 참된 법과 최상의 안온함에 이른다. 출가자는 재가자로부터 의류와 생필품과 침구 그리고 약품을 받는다. 이에 재가자는 선서(善逝)인 출가자를 의지하여 아라한의 반야지혜와 선정을 믿는

398b-399b. 이와 같은 집을 ‘학지인정을 받은 집’(sekhasammata kula)이라고 한다. 학지인정을 받은 줄 알면서도 그 집에서 보시를 받은 비구, 비구니는 죄가 된다(Vinaya IV pp. 178-181).

38) 사사키 시즈카(2007). 원영 역 pp. 242-243.

다. 현생에서 닦아 좋은 세계에 이르는 길과 기쁨이 있는 욕락의 천상을 성취한다.”

이러한 관계를 경전에서는 財施와 法施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출가와 재가는 재보시와 법보시를 통한 상호 호혜적 관계가 있다. 이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어야 불교승단은 유지되고 발전된다. 이 관계가 틀러볼로 인하여 균형이 깨지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된다면 불교승단은 오래 머물 수 없다. 이 둘의 관계를 바르고 균형있게 지속시키기 위하여 율장에서는 승가갈마에 의한 조치가 보인다. 의지갈마, 구출갈마, 하의갈마, 복발갈마, 학가갈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갈마를 통하여 출가자와 재가자가 너무 가까이 하거나 또한 멀리 떠나는 관계를 피하게 하였다. 이러한 승가 갈마들은 출가자의 청정과 위의와 재가자의 신심과 존경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불교승단의 출가자만의 독점물은 아니다. 출가자가 재가자를 지나치게 가까이 하면 불교승단은 세속화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한다면 종교적 역할은 상실되고 만다.

〈참고 문헌〉

- 『四分律』, TD 22.
『五分律』, TD 23.
Aṅguttara Nikāya IV, PTS.
Majjhima Nikāya I, PTS.
Suttanipāta V
『남전대장경』
- 김성철(2003). 「출가자의 삶과 재가자의 수행 목표」, 『불교와 문화』 54호, 서울, pp. 99-105.
김성철, 법보신문 972호, 「신자유주의 시대에 불교가 흥하려면」. 연도
조준호(2003). 「초기경전에 나타난 재가자의 위상과 신행생활」, 『불교평론』 14집, 서울, pp.112-139.
조준호(2008). 「출가와 재가가 나누어진 사상적 이유」, 『불교평론』 35집, 서울, pp. 203-235.
佐藤密雄(1994). 『律藏』, 최법혜 역, 서울, 동국역경원.
[佐藤密雄(1980(1972)). 『律藏』, 東京, 大藏出版.]
中村元(1993). 『原始佛教』, 정태혁 역, 서울, 東文選.
[中村元(1983). 『原始佛教 : その思想と生活』,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五戒把持運動國際本部(1995). 『五戒把持』, 서울, 불지사.
목정배(2001). 『계율학 개론』, 서울, 장경각.
박영미(2008). 『육부율장에 나타난 비구니의 의식주 생활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안양규(1999). 「불교의 성지 순례와 그 종교적 의의」, 『종교문화연구』 창간호, 서울, pp.
우마 차크라바르티(2004). 『고대인도사회와 초기불교』, 박제선 역, 서울, 민족사.
[Chakravarti, Uma(1987). *The social Dimensions of Early Buddhism*, Delh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이상규(2004). 『전래오는 부처의 가르침 VII』, 서울, 해조음.
이자랑(2009), 『나를 일깨우는 계율이야기』, 서울, 불교시대사.
이태원(2000). 『초기불교 교단생활』, 서울, 운주사.
사사키 시즈카(2007),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 원영 역, 서울, 민족사.

[佐佐木閑(2002(1999)). 『出家とはなにか』, 東京, 大藏出版.]

신성현(1997). 「初期佛敎敎團과 國家와의 關係-律藏을 중심으로-」, 『佛敎學報』 34집, 서울, pp. 311-327.

신성현(2008), 「驅出羯磨에 대한 小考」, 『韓國佛敎學』 51집, 서울, pp. 5-29..

탁효정(2007). 「불교가 새로워지려면-재가자로서의 역할」, 『佛敎』 625호, 서울, pp. 60-63.

홍사성(2000). 「출가와 재가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시론」, 『불교평론』 4집, 서울, pp.147-175.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Monks and Laymen in
Buddhist Kamma.**

Shin sung hyun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illuminate the relation between monks and layman in the early Buddhism. The first disciple of Sakyamuni Buddha was Upāsaka not Bhikṣu(monk). When Sakyamuni Buddha attained Enlightenment under a Bodhi tree, two merchants called Tapussa and Bhalliya offered meals to Him and became the first Upāsaka. This is even before the sermon of Migadāya for five monks. This story shows that Buddha did not distinguish laymen from monks.

Laymen should respect monks, open their homes to monks and offer them the necessities of life, while monks should sermon the teaching of Buddha to laymen and lead laymen to the right way. This can be summed up as the relation of material giving and dharma giving. Only when this material and spiritual dana(giving) relation is well maintained, Buddhist Sangha can survive and sustain.

The conflicts between monks and laymen can be revealed to the outside from time to time. This is due to the lack of their negligence of bodily discipline and duties. Where there are good laymen, we tend to witness many good monks. When monks do not lead exemplary lives as monks, laymen lose respects and faith for monks. When both of laymen and monks are negligent in their bodily discipline and duty, the relation of them will

be also dismantled.

The relation between laymen and monks was reciprocal at the time of the early Buddhism. In terms of material relation, they were the offerers and the offered; in terms of religious relation, they were the preached and the preacher; in terms of truth, they were the protector of dharma and the inheritor of dharma. As for religious acts such as practices and sermons, monks lead laymen. On the other hand, to spread the truth and protect the Buddhist sect, laymen play more leading roles and monks are more or less protected.

Key Words : Buddhist Sangha, Monk Laymen, Upasaka, Kamma